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Australia: Focusing 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고은진*

Eunjin Ko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개정된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의 2022 음악과 교육과정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Version 9.0) 문서 자료를 역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분석 항목별로 두 나라 교육과정의 특징과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음악과 역량, 성격 및 목표 항목의 내용, 교육과정 설계 방식 등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본 논문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한국, 호주, 비교분석연구, 음악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wly revised 2022 music curriculum through comparative and analytical research on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Australi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usic curriculum based on this study. By using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e 2022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Australia(Version 9.0) document data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cusing on items such as competency, rationale, goal,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curriculum of the two countries were derived for each analysis item, and based on the data analysis, several implications such as music competency, contents of rationale and goal item, and curriculum design method were suggested. In the process of sequentially applying the 2022 revised music curriculum in the field, it is hoped that future research will be continuously conducted, and that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Key words: 2022 revised curriculum, music curriculum, Korea, Australia, comparative analysis research, music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ilwge@snu.ac.kr

Music Teacher, Jangseung Middle School, 25, Jangseungbaegi-ro 10ga-gil, Dongjak-gu, Seoul, Korea

Received: 31 May 2023, Reviewed (Revised): 6 July (11 July) 2023, Accepted: 20 July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2022년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포용성과 창의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2015 음악과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었다면, 이번 2022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 역량 제시와 더불어 학생들이 삶 속 공동체 안에서 음악적으로 소통하며, 감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을 발휘하여 음악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이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은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현재 삶과 미래를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 및 태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국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적 핵심 문서로, 각국의 교육과정은 자국의 문화, 이념, 가치, 교육 체계 등을 토대로 설계되어 각 나라의 교육적 동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시 자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교육적 맥락을 바탕으로 외국 교육과정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국제 사회의 교육적 동향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지식, 가치 및 태도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022 교육과정이 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설계되었지만,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및 학습 내용이 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OECD 국가 중 하나인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Version 9.0)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한국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연구들을 통해 다뤄졌었지만(Lee, 2019; Park & Kim, 2021b; Yoon, 2018), 본 논문과 같이 새롭게 개정된 2022 교육과정과 호주의 Version 9.0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뤄질 호주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2022 교육과정과 같은 해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코로나19와 인공지능과 같은 다른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비교 연구대상으로써 충분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깊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Version 9.0)과 한국의 2022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중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역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의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II.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자료를 항목별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된 교육과정 문서와 분석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석 대상

본 논문에서 사용된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따르면, 한국의 2022 교육과정 문서의 개정 시기는 2022년 12월 22일이며(Ministry of Education, 2022c), 호주의 교육과정(Version 9.0) 승인 날짜는 2022년 4월 1일로(ACARA, 2023b), 두 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이 상당히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2024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는 전국의 모든 학교급 및 학년별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반면(Ministry of Education, 2022c), 호주의 교육과정은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의 제도 정책 및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이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에, 한국과 달리 주 및 학교별로 교육과정 시행에 대한 일정과 접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ACARA, 2023e).

<Table 1> Music curriculum documents in Korea and Australia

Country	Revision date	Document	Reference
Korea	2022. 12. 22.	Music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2022)
Australia	2022. 4. 1.	Australian curriculum(Version 9.0)	ACARA ¹⁾ (2022)

2. 분석 기준

본 논문은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탐색한 후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에, 한국의 2022 교육과정 구성 요소인 ‘역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 기준’ 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다만, 분석 기준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호주의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수·학습 및 평가’ 항목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의 다른 항목들과 함께 어우러져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²⁾

1)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의 약자

2) 호주의 ‘F-10 교육과정’ 개요에는 학습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설명(Content descriptions)’ 항목과 학생들의

따라서 두 교육과정의 분석 기준은 다음 <Table 2>와 같으며, 한국과 호주 각 나라의 교육과정 항목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 및 명칭이 다르기에, 아래 표와 같이 국가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able 2> Analysis criteria

Criteria	Korea curriculum	Australia curriculum
Competency	• General competency • Musical competency	• General capabilities
Rationale	• Rationale	• Rationale
Goal	• Goal	• Aims
Content system	• Content area • Key idea • Content element	• Structure • Content descriptions • Content elaborations
Achievement standard	• Achievement standard • Explanation of achievement standard •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achievement standards	• Achievement standard • Music achievement standard • Learning area achievement standard

Ⅲ. 호주 교육과정의 발전 및 개요

1. 호주 교육과정의 발전

호주는 연방 정부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중앙 정부와 6개의 주 및 2개의 지역 정부³⁾로 구성되어 있다(ACARA, 2023f). 호주는 오랫동안 국가교육과정이 아닌, 주별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체제는 지역에 따른 호주의 교육 격차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2008년 ‘멜버른 선언(Melbourne Declaration)’을 기점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교육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이 탄생하게 되었다(So, Jang, & Lee, 2011, pp. 53-57). 그 이후 2020년에 멜버른 선언을 대체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국가 교육 목표가 반영된 ‘앨리스 스프링스 교육 선언문(Alice Springs(Mparntwe) Education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⁴⁾ ‘앨리스 스프링스 교육 선언문’

학습 도달점을 제시한 ‘성취 기준(Achievement standards)’ 항목 등이 학습을 계획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구성 요소라고 기술하고 있다(ACARA, 2023a).

3) State: New South Wales, Victoria, Queensland,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Territory government: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4) ‘앨리스 스프링스’란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에 위치한 지역명으로, 이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통적인 관리인인

은 멜버른 선언문의 목표, 행동, 주제 및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ACARA, 2023f). 첫째, 호주의 교육 제도는 우수성과 형평성을 장려하며 둘째, 호주의 청소년들이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성공적인 평생 학습자’, ‘적극적이고 교양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ACARA, 2023f). 이와 같은 ‘앨리스 스프링스 교육 선언문’의 목표는 이번 교육과정(Version 9.0)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ACARA, 2023f).

다음으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년 멜버른 선언 이후 진행된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Timelin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ACARA, 2023b)

Date	Content
2008	All governments agreed to a national curriculum
2010	Australian curriculum released with english, mathematics, science and history foundation to year 10 (Version 1.0)
2011-2012	English, mathematics, science and history subjects updated (Versions 2.0 and 3.0)
2012	Addition of senior secondary (years 11-12) curriculum in these four subject areas (Version 4.0)
2013	Geography added (Version 5.0)
2014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technologies, the arts and some subject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dded (Version 6.0) as well as some languages (Version 7.0)
2015	All eight learning areas revised as an outcome of the 2014 Australian government review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Version 8.0) Ministers also agreed, following a separate review of ACARA in 2015, that the Australian curriculum should be reviewed by ACARA every six years, with the first cycle to commence in 2020-2021
2015-2020	Minor updates and editorial adjustments to the curriculum (Version 8.4, the current curriculum in use today)
2020	Ministers agreed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current review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Post 2020	Extensive consultation by ACARA on proposed revisions, including an open public consultation process during April-July 2021
1 April 2022	Version 9.0 Australian curriculum approved

<Table 3>에 따르면 호주의 첫 번째 국가 교육과정(Version 1.0)은 2010년에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 4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그 이후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교과 과목이 추가되었는데, 음악 교과를 포함하고 있는 ‘예술(The Arts)’ 영역은 비로소 2014년 여섯 번째 교육과정(Version 6.0)에서 개발되었다. 이는 한국의 교육과정 개발 과

‘Arrenrnte’ 부족은 이 지역을 ‘Mparntwe’라고 부른다(ACARA, 2023f).

정과 대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부터 음악과 교육과정 이 개발되었지만, 호주의 경우 교육과정이 단계적으로 개발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교과들에 비해 개발 시기가 늦다. 또한, 음악 과목이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이 아닌, 예술 영역에 포함되어 개발되었다는 점은 호주의 교육에서 ‘음악’ 교과의 위상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2. 호주 교육과정의 개요

호주의 교육과정은 3차원(3 dimension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 영역(Learning areas)’,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 ‘범교과교육과정 우선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으로 구성되어 있다(ACARA, 2023a). 학생들은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필요한 필수 지식, 이해 및 기술들을 배워나갈 수 있으며, 각 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ACARA, 2023a).

먼저 호주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는 ‘학습 영역’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 영역을 나타낸 것으로 ‘F-10 교육과정’과 ‘후기 중등 교육과정(Senior secondary curriculum)’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 영역은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 Learning areas(ACARA, 2023d; 2023h)

Curriculum	Learning area
F-10	• English
	• Mathematics
	• Science
	•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HASS, civics and citizenship, economics and business, geography and history
	• The arts - Dance, drama, media arts, music and visual arts
	• Technologies - Design and technologies, and digital technologies
	• Languages - Arabic, Auslan, Chinese, French, German, Hindi,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orean, modern Greek, Spanish, Turkish and Vietnamese, as well as the framework for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languages, and framework for classical languages including classical Greek and Latin.

<Table 4> Continued

Curriculum	Learning area
Senior secondary	• English - English,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r dialect, essential english and literature
	• Mathematics - Essential mathematics, general mathematics, mathematical methods and specialist mathematics
	• Science - Biology, chemistry,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and physics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ncient history, modern history and geography

<Table 4>에 따르면, ‘F-10 교육과정’은 총 8개의 학습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어’, ‘수학’, ‘과학’, ‘보건 및 체육’ 등 4개의 영역만이 단일 학습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제외한 ‘인문사회과학’, ‘예술’, ‘기술’, ‘언어’의 학습 영역은 각각 여러 과목이 포함되어 구성된다. 따라서 음악 교과와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적인 학습 영역이 아닌, ‘춤’, ‘연극’, ‘미디어 예술’, ‘시각 예술’ 교과와 함께 ‘예술’ 학습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후기 중등 교육과정’은 ‘영어’, ‘수학’, ‘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총 4개의 학습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일반 역량(General capabilities)’은 학생들의 자신감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평생 학습자 및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각각의 역량은 학습 영역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제시될 때에 함양될 수 있다(ACARA, 2023a). 일반 역량은 총 7가지의 역량으로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역량으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윤리적 이해(Ethical understanding)’, ‘상호문화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개인적·사회적 능력(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등이 있다(ACARA, 2023c).

마지막으로 ‘범교과교육과정 우선사항(Cross-curriculum priorities)’은 호주의 모든 교육 과정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설정한 것으로, 별도의 학습 영역이나 과목이 아닌 학습의 내용(idea)을 포함한다(ACARA, 2023g). ‘범교과교육과정 우선사항’은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의 역사와 문화(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histories and cultures)’, ‘아시아와 호주의 아시아 참여(Asia and Australia’s engagement with Asia)’,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며, 이는 학습 영역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세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ACARA, 2023g).

IV.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비교 · 분석

1. 역량 비교 분석

역량이란 21세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현재 삶과 미래를 위한 교육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개념으로, OECD의 ‘DeSeCo’ 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 각국에 주요한 교육과정 설계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ong, 2014).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번 2022 교육과정 또한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음악 교과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역량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5> General competency and musical competency of Korea(Ministry of Education, 2022b)

Country	General competency	Musical competency
Korea	• Self-management • Creative thinking • Aesthetic sensibility • Cooperative communication • Community •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 Self-agency • Creativity • Sensibility • Communication • Community

먼저 <Table 5>에 따라 역량을 제시하는 전체적인 틀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총론의 핵심역량과 음악 교과 역량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음악 교과 역량은 ‘자기주도성 역량’, ‘창의성 역량’, ‘감성 역량’,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총 5가지 역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총론의 핵심역량을 음악 교과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한 역량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22b), 총론과 음악 교과 역량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 의도가 담겨있다. 다만 총론에서 제시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음악과 역량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음악 교과의 영역 및 체계 전반에 걸쳐 구현되었기 때문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반면, 호주는 교과 역량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판적 · 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 문해력 역량’, ‘윤리적 이해 역량’, ‘상호문화간 이해 역량’, ‘문해력 역량’, ‘수리력 역량’, ‘개인적 · 사회적 능력 역량’ 등 7개의 일반 역량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는 교과 역량이 없는 대신, 일반 역량이 각 교과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학습 영역마다 ‘핵심 연결사항(Key connections)’⁵⁾ 항목을 제시하여, 일반 역량을 각 학습 영역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기술하고 있다. 음악 교과의 경우에

는 독립된 학습 영역이 아닌 ‘예술’ 영역에 속해 있기에, 역량과 관련된 설명이 예술 영역에 준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역량 제시 방식은 음악 교과뿐만 아니라 호주의 모든 교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와 같이 일반 역량만 제시할 경우 교육의 방향성을 하나로 모아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각 교과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간과될 수 있기에 일반 역량을 각 교과 내용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Table 6>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음악과 역량과 호주의 일반 역량을 한국의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나씩 비교하여 살펴보았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Table 6> Competency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3c)

Content	Musical competency of Korea	General competency of Australia
Competency	• Self-agency • Creativity • Sensibility • Communication • Community	• Personal and social capability •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 Ethical understanding • Intercultural understanding • Literacy • Numeracy • Digital literacy

먼저 한국의 ‘자기주도성 역량’과 ‘소통 역량’은 호주의 ‘개인적·사회적 능력 역량’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기주도성 역량’은 ‘음악적 자신감’, ‘자발적 음악 참여’, ‘음악적 삶’과 관련된 역량으로, 개인의 예술적 목표를 세우고 자기 인식 및 자기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호주의 ‘개인적 능력(Personal capability)’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소통 역량’은 ‘서로 다른 음악 표현 존중’, ‘협력’, ‘교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공감’, ‘관계적 인식’, ‘소통’, ‘협력’ 등의 의미를 갖는 호주의 ‘사회적 능력(Social capability)’과 일맥상통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창의성 역량’은 ‘음악적 새로움’, ‘독창’, ‘연계’, ‘융합’과 관련된 역량으로 호주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견줄 수 있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탐구하기’, ‘생성하기’, ‘분석하기’, ‘반영하기’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ACARA, 2022b), 학생들은 이 역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한국의 ‘감성 역량’은 음악의 가치 및 의미와 관련된 역량으로 ‘음악의 아름다움’, ‘정서와 가치’, ‘공감’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의 경우 한국의 감성 역량과 완벽하

5) ‘핵심 연결사항(Key connections)’을 통하여 학습 영역과 일반 역량, 범교과교육과정 우선사항 및 기타 학습 영역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ACARA, 2023h).

게 부합되는 역량은 없지만, 감성 역량의 ‘정서와 가치’ 측면에서는 ‘가치 조사’의 요소를 담고 있는 ‘윤리적 이해 역량’이, ‘공감’ 면에서는 ‘공감 개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호문화적 이해 역량’이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동체 역량’은 ‘다양한 음악 문화 개방 및 포용’, ‘공동체 발전’과 관련된 역량으로 호주의 ‘상호문화적 이해 역량’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문화적 이해’ 역량의 구성 요소는 ‘문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성찰’,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에 참여’, ‘문화간 맥락 탐색’으로(ACARA, 2022c), 학생들은 이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문화적 관점과 관행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

2. 성격 비교 분석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 안에서 ‘성격’ 항목은 음악 교과의 정체성 및 교과 당위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자, 음악 및 음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관점 및 교육철학이 드러나는 항목이기에 교육과정 비교·분석 시 더욱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두 나라 음악교육의 근간이 되는 ‘성격’ 항목을 주도면밀하게 탐색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Examples 1. Rationale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a)

Country	Examples of rationale
Korea	• Music is an art that expresses various human emotions and thoughts through sound, and is also a product of human activities that reflect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the changing phases of the times. • Humans enjoy the beauty of music through activities such as singing songs, playing musical instruments, or listening to and making music, and experience an irreplaceable experience.
Australia	• Music's raw material is sound. In music, sounds are combined and shaped into a meaningful form. Music exists distinctively in every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ulture, and is a basic, shared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of human experience. • Practical engagement with music develops capabilities that can be gained in no other way.

<Table 7>에 따르면, 두 나라 모두 공통적으로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인간의 경험 및 생각을 표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음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능력 또는 경험은 오직 음악 교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음악 교과가 다른 교과로 대체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 교과를 바라보는 공통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다음 <Table 8>을 바탕으로 성격 항목에서 드러난 두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Table 8> Examples 2. Rationale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a)

Country	Examples of rationale
Korea	• Feel emotional stability and happiness through the pleasure and joy of sound and music. • Through cooperative music experiences in daily life, human beings cultivate personality such as self-esteem, responsibility, and balance. • Our music culture, which encompasses all of the traditional, modern, artistic, and practical values, raises our country's status globally and leads the development of various cultural industries by broadening our views and perspectives on music. • Grow socially by understanding the values of the community through musical communication between regions, generations, and classes.
Australia	• Music has the capacity to motivate, inspire and enrich the lives of all students. • Music is a significant element in the diversity and continuity of local and global cultures, particularly the cultures of First Nations Australians. Through music, First Nations Australians express connection to Country/Place, challenge the impact of other cultures on their ways of knowing, being, doing and becoming, contribute to the global music community, and advocate for change. • Students' active participation in music, through continuous and developmentally sequential music learning, encourages skills and aesthetic knowledge of increasing depth and complexity over time. As independent and collaborative learners, students integrate listening, composing and performing activities, using established and emerging technologies. Music learning enhances students' capacity to perceive and understand musical concepts, and to recognize music's contribution in shaping their identity and their ability to explore personal, local and global issues and ideas.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소리와 음악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 6)라고 서술하며 음악이 사람에게 주는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음악으로 인해 얻어지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은 생활 속에서의 협력적 음악 경험을 통해 자존감 · 책임감 · 균형감 등의 인성을 함양하고”(Ministry of Education, 2022b, p. 6)라며 서술하면서 협력적 음악 경험을 통한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전통적 · 현대적 · 예술적 · 실용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우리 음악 문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음악에 대한 시각과 안목을 넓혀 다양한 문화 산업 발전을 선도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 6)라고 기술하며 한국의 특정한 음악 장르를 명시하지 않고, ‘국악’, ‘K-Pop’ 등 한국의 음악 문화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우리 음악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전반적인 음악 문화를 강조하였다. 넷째, “지역 · 세대 · 계층 간 음악적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성장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p. 6)라고 서술하며, 앞서 음악 교과 역량에서 제시한 음악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호주의 성격 항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모든 학생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며,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ACARA, 2022a)라고 서술하며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음악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특정한 감정 및 정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호주의 역사 및 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음악은 지역 및 세계 문화, 특히 호주 원주민 문화의 다양성과 연속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ACARA, 2022a)라고 명시함으로써 음악을 통해 호주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이 음악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음악적 능력과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목표 비교 분석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서 목표란 음악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제시한 것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22b),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Table 9>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두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Table 9> Goals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a)

Country	Goal
Korea	• Overall goal - The <Music> subject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evelops sensibility, creativity, and self-agency through various music activities that encompass the core knowledge, understanding, process, skill, value, and attitude of music, and aim to foster human beings who can communicate in various communities in daily life. • Detailed goal a. Recognize the beauty and value of music and develop the sensibility to feel emotional stability. b. Cultivate creativity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music, express it in a new way, and create it. c. Develop self-agency ability to participate in various musical experiences in daily life. d. Respect different musical expressions through cooperative music activities and communicate in daily life. e. Contribute to the community to which one belongs, recognizing the diverse musical cultures and the role of music.
Australia	• Music aims to develop students’: a. Confidence to be creative, innovative, thoughtful, skillful and informed musicians b. Knowledge and skills for listening with intent and purpose, composing and performing c. Aesthetic knowledge and respect for music and music practices across global communities, cultures and musical traditions d. Understanding of music as an aural art form as they acquire skills to become independent music learners.

먼저 한국의 음악과 목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음악과 목표는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으며, 총괄 목표는 5가지 음악 교과 역량과 관련하여 학습 목표를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Jang, Park, & Oh, 2023). 또한, 세부 목표는 음악과 교과 역량과 일대일로 대응하여 제시되었는데, 이는 음악과의 목표가 교과 역량과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세부 목표 ‘a’에 ‘음악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인식하고’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2b), 음악 소리에 내재된 ‘아름다움’과 ‘가치’를 연구하는 분야가 음악미학과 음악철학으로(Oh, 2021), 음악의 ‘미학적’, ‘철학적’ 관점이 음악과 목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세부 목표 ‘c’와 ‘d’에서는 ‘in daily life’ 즉, ‘생활 속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Ministry of Education, 2022b), 이는 2015 교육과정 내용 영역에 포함되었던 ‘생활화’ 영역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생활’이라는 단어를 세부 목표에 명시함으로써 ‘음악의 생활화’를 2022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세부 목표 ‘e’에서 ‘공동체에 기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공동체 역량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한국의 공동체 중심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목은 총론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 목표’에서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Ministry of Education, 2022c, p. 7)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음악과 목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 ‘a’에서 ‘Confidence’ 즉,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앨리스 스프링스 교육 선언문’의 교육 목표들⁶⁾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목표 ‘b’의 경우 ‘음악 활동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개발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 학습에 있어서 지식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한국의 음악과 목표와 대비되는 점이다. 셋째, 목표 ‘c’에서는 ‘지구촌, 문화 및 음악적 전통 전반에 걸친 음악 및 음악 관행에 대한 미적 지식과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음악 표현들을 존중하며, 다양한 음악 문화에 대해 알아간다는 점에서 한국의 세부 목표 ‘d’, ‘e’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호주에서는 다른 음악 문화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미적 지식’을 언급하면서 지식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넷째, 목표 ‘d’에서 ‘독립적인 음악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세부 목표 ‘c’에서 언급한 ‘자기주도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6) 호주의 청소년들이 자신감 있고 창의적인 개인, 성공적인 학습자, 적극적이고 교양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ACARA, 2023f).

4. 내용 체계 비교 분석

내용 체계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Ministry of Education, 2022b), 한국과 호주의 내용 체계는 <Table 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Table 10> Content system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d; 2022e)

Country	Content system
Korea	• Area a. Performing b. Listening c. Creating
	• Key idea
	• Content element
	knowledge • understanding / process • skill / value • attitude
Australia	• Structure a. Exploring and responding b. Developing practices and skills c. Creating and making d. Presenting and performing
	• Content descriptions
	• Content elaborations

먼저 한국의 내용 체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이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차 조직자로(Ministry of Education, 2022b), 음악 교과의 경우 ‘연주’, ‘감상’, ‘창작’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내용 영역이 ‘표현’, ‘감상’, ‘생활화’로 이루어졌으나, 2022 교육과정에서는 표현 안에 포함되어 있던 연주와 창작을 독립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생활화 영역은 음악 고유의 영역이 아니고 음악과 역량과 직결되므로 영역에서 삭제되었다.”(Park & Kim, 2021a, p. 70). 이와 같이 이번 2022 음악과 영역은 음악 교과만의 특성을 살려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핵심 아이디어’란 음악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영역별 핵심 아이디어는 ‘원리’, ‘맥락’,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마지막으로 ‘내용 요소’는 음악 교과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으로, 성취기준의 근간이 되는 ‘지식 · 이해’, ‘과정 · 기능’, ‘가치 · 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먼저 ‘지식 · 이해’는 각 영역에서 학습해야 할 ‘음악 범위’, ‘내용적 · 절차적 지식’, ‘학습 요소 및 관점’

으로 구성되며, ‘과정·기능’은 ‘신체적·실천적 기능(노래/연주 등)’과 ‘인지적·연계적 기능(설명/활용 등)’으로 구성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마지막으로 ‘가치·태도’는 음악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한 가치 및 태도로 ‘개인의 음악적 태도 및 가치’와 ‘사회적·문화적·정서적 가치’로 구성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한편, 호주의 내용 체계는 ‘구조(Structure)’, ‘내용 설명(Content descriptions)’, ‘내용 상세화(Content elaborations)’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호주의 ‘구조’는 ‘탐색 및 반응(Exploring and responding)’, ‘실습 및 기술 개발(Developing practices and skills)’, ‘창작 및 제작(Creating and making)’, ‘발표 및 공연(Presenting and performing)’의 4가지 영역(strand)으로 이루어져 있는데(ACARA, 2022a), 이 영역들은 음악 교과뿐만 아니라 ‘예술’ 영역 교과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위 4가지 영역 모두 음악 교과에서 학습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한국과 같이 음악 교과만의 특성을 담은 내용 체계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내용 설명’이란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지식, 이해 및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ACARA, 2023a), ‘구조’의 영역별로 함께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소들은 한국의 성취기준과 같이 문서번호로 제시되어 있다.⁷⁾ 마지막으로 ‘내용 상세화’는 각각의 ‘내용 설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범위의 선택적 예시 자료로, 교사가 ‘내용 설명’에 대해 가르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서의 역할을 담당한다(ACARA, 2023a; 2023h). 또한, 호주의 경우 내용 체계와 더불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고려 사항(Key considerations)’이라는 항목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Table 11>과 같다.

<Table 11> Key considerations(ACARA, 2022a)

Country	Key considerations
Australia	a. Elements of music b. Music practices: Listening c. Music practices: Composing / Notating, documenting and/or recording d. Music practices: Performing / Instruments e. Responding

‘주요 고려 사항’이란 교사가 학습 영역과 교수·학습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ACARA, 2023h), ‘음악 요소’, ‘음악 실행(감상, 작곡, 연주)’,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ACARA, 2022a), 교사는 이를 통해

7) 호주의 ‘내용 설명’ 항목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요소들을 제시한 점에서는 ‘내용 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동시에 각 학년 군별, 영역별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취기준’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내용 설명(Content descriptions)’은 ‘성취기준 진술’로, ‘내용 상세화(Content elaborations)’는 ‘성취기준 해설’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의 각 영역을 구체화하여 한층 더 깊이 있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각각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음악 요소’는 ‘길이/시간(박 및 리듬 포함)’, ‘음높이’, ‘셈여림 및 표현’, ‘형식 및 구조’, ‘음색 및 텍스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든 음악 학습을 뒷받침한다(ACARA, 2022a). 다음으로 ‘음악 실행’에는 ‘감상’, ‘작곡’, ‘연주’ 등 3가지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수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감상’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선호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ACARA, 2022a). 둘째, 음악 표기, 문서화 및 녹음 등 다양한 형식 및 방법을 활용한 ‘작곡’ 활동을 하면서 아이디어 및 의도 개발, 다른 음악의 아이디어 평가 및 분석, 음악 요소 조작 및 작곡 장치 사용 등 창의적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ACARA, 2022a). 셋째, ‘연주’ 수업에서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 신체 등을 활용하여 수업과 같은 비공식적인 환경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연습한 음악을 동료들을 비롯한 청중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다(ACARA, 2022a). 마지막으로 ‘반응’이란 학생들이 위와 같은 음악적 활동을 통해 음악적 경험과 아이디어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ACARA, 2022a).

5. 성취기준 비교 분석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이란 학생들이 음악의 영역별 내용 요소를 학습한 후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한국과 호주 모두 음악과 성취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조에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각 나라의 성취기준은 <Table 12>와 같이 구성된다.

<Table 12> Achievement standard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d; 2022e)

Country	Achievement standard
Korea	• Achievement standard • Explanation of achievement standard •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achievement standards
Australia	• Achievement standard (F, 7-8, 9-10) • Music achievement standard (1-2, 3-4, 5-6) • Learning area achievement standard (1-2, 3-4, 5-6)

<Table 12>에 따르면, 한국은 음악 교과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 군부터 [중학교 1~3학년] 군까지 모든 학년 군에서 영역별 ‘성취기준’뿐만 아니라 ‘성취기준 해설’과 ‘성

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는 이와 달리 성취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 군에 따라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Foundation 단계와 [Years 7-8], [Years 9-10] 단계에서는 '성취기준'을, [Years 1-2], [Years 3-4], [Years 5-6] 단계에서는 '음악 성취기준'과 더불어 '학습영역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영역 성취기준'이란 음악이 포함된 '예술' 영역의 성취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학습영역 성취기준'에서 제시된 내용이 음악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과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어서 각 나라의 성취기준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초등학교 5-6학년] 군과 호주의 [Years 5-6] 단계의 성취기준 예시를 다음 <Table 13>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13>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취기준의 경우 '연주', '감상', '창작' 등 음악의 각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Table 13> Examples of achievement standard of Korea and Australia(Ministry of Education, 2022b; ACARA, 2022d)

Country	Examples of achievement standard
Korea	• Performing - [6M01-01] Learn proper playing techniques and expressive techniques, and play songs or instruments with feeling. - [6M01-02] Make use of the musical elements to make a presentation with a song or instrument and look back on the process. - [6M01-03] Think about the harmony of sound and express it together in various ways. - [6M01-04] Prepare a simple form of performance and participate in music activities in daily life.
	• Listening - [6M02-01] Listen to music, detect and distinguish elements of music. - [6M02-02] Listen to music from various cultures and recognize musical characteristics and simple compositions of music. - [6M02-03] Listen to various types of music and explain the background and use of music. - [6M02-04] Find and listen to music in your daily life and feel and empathize with its beauty. - [6M02-05] Discover and listen to Korean musical heritage and recognize the valu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Creating - [6M03-01] Come up with feelings and ideas and express them confidently in various media and methods. - [6M03-02] Using basic notation, change part of a piece of music according to simple conditions. - [6M03-03] Create simple music using elements of music. - [6M03-04] Have an open attitude while making music using situations or stories in your life.

<Table 13> Continued

Country	Examples of achievement standard
Australia	• Music achievement standard - By the end of Year 6, students explain how elements of music are manipulated in music they compose, perform and/or experience. They describe how music composed and/or performed across contexts, cultures, times and/or places communicates ideas, perspectives and/or meaning. They describe how music is used to continue and revitalise cultures. - Students demonstrate listening and aural skills when composing and performing. They use elements of music and compositional devices to compose music that communicates ideas, and when practising music for a performance. They notate, document and/or record the music they compose. They perform music in formal and/or informal settings.
	• Learning area achievement standard - By the end of Year 6, students explain the use of elements, concepts and/or conventions in arts works they create and/or experience. They describe how the arts communicate ideas, perspectives and/or meaning across cultures, times, places and/or other contexts. They describe how the arts are used to continue and revitalise cultures. - Students use subject-specific knowledge, elements, concepts, conventions, materials, skills and/or processes to create arts works that communicate ideas, perspectives and/or meaning. They demonstrate safe practices. They present and perform their arts works in formal and/or informal settings.

호주의 경우 영역을 나누지 않고 모든 음악 영역을 통합하여 기술하였다. 둘째, 한국의 성취기준에서는 ‘연주한다’, ‘돌아본다’, ‘표현한다’, ‘참여한다’, ‘구별한다’, ‘공감한다’ 등 다양한 범주의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호주와 같이 하나의 행위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지식 · 이해’, ‘과정 · 기능’, ‘가치 · 태도’의 세 범주가 잘 어우러져 명시되어 있다 (Jang, Park, & Oh, 2023). 이와 달리 호주의 성취기준에서는 ‘설명하다’의 뜻을 가진 ‘explain’, ‘describe’와 같은 동사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학습을 통해 얻은 음악적 지식 및 경험 등을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감상’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음악의 다양한 장르 중 ‘국악’ 장르를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음악 장르인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호주의 경우 음악의 특정 장르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모든 음악 장르에 적용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한국의 경우 이번 2022 교육과정에서 생활화 영역이 사라졌지만, 모든 영역에서 ‘생활’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음악의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다.

V. 논의 & 결론

지금까지 한국과 호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역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분석 항목별로 두 나라의 교육과정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역량’의 경우 1) 두 나라 모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관리’ 및 ‘자기 인식’에 관한 역량과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2) 두 나라 모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창의성’과 관련된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호주는 이와 더불어 한국과 달리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께 제시하며 비판적 사고의 함양을 중시하고 있다. 3) 두 나라 모두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와 관련된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다문화 국가인 호주의 경우 이와 더불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성격’ 항목을 살펴보면 1) 두 나라 모두 음악 교과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과 능력은 오직 음악 교과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음악 교과의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다. 2) 한국의 경우 음악교육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인성 함양’을 강조하는 반면, 호주는 ‘개인의 음악적 능력’ 및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한국은 ‘우리 음악 문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의 전체적인 음악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호주는 ‘호주 원주민(First Nations Australians)’을 특별하게 언급하며 호주 원주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목표’의 경우 ‘성격’ 항목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1) 한국의 음악과 목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음악적 지식 및 기능 측면보다는 음악교육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정의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호주에서는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보다는 과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적 이해, 지식 및 기능적인 부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1) 한국의 내용 체계는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호주의 경우 ‘구조’, ‘내용 설명’, ‘내용 상세화’로 구성되어 있다. 2) 한국의 ‘영역’은 ‘연주’, ‘감상’, ‘창작’ 등 음악 교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 구성된 반면, 호주는 ‘탐색 및 반응’, ‘실습 및 기술 개발’, ‘창작 및 제작’, ‘발표 및 공연’ 등 ‘예술’ 영역의 모든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교과만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3) 호주의 경우 ‘내용 상세화’ 항목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성취기준’의 경우 1) 한국의 성취기준은 문서번호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반

면, 호주의 성취기준은 줄글의 형태로 제시되어 한국에 비해 성취기준의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2) 한국의 경우에는 모든 학년 군에서 ‘영역별’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호주는 영역별이 아닌 ‘학년 군별’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한국의 성취기준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범주가 적절히 어우러져 제시된 반면(Jang, Park, & Oh, 2023), 호주의 경우 음악의 ‘지식’, ‘기능’, ‘과정’의 측면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4) 한국은 ‘국악’과 ‘생활’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국악 교육의 중요성과 음악의 생활화를 강조하였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의 항목별로 두 나라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교육과정의 모든 항목들이 서로 연계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성격’ 항목의 내용들이 ‘목표’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각 나라의 교육 철학 및 문화적 특성 등이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상기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 음악과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을 음악과 역량으로 제시해야 한다. 총론에서 제시한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음악 영역 및 내용 체계 전반에 연계되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음악과 역량에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Ministry of Education, 2022b), 호주의 경우 ‘디지털 문해력 역량’을 언급하고 있으며, 음악 교과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한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성격 항목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음악 활동을 함으로써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고 미래 디지털 기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p. 6)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항목에서도 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에(Ministry of Education, 2022c), ‘정보통신기술’ 또는 ‘디지털’과 관련된 음악 교과 역량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과정에 제시한다. 호주의 경우 ‘창의적 사고’ 역량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비판적 사고란 ‘학생들이 논증을 구성하고 평가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와 증거 및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ACARA, 2022b). 학생들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함양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통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다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인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과의 연계성도 높일 수 있다.

셋째, 성격 및 목표 항목에서 음악과 관련된 지식 및 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강조하여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성격 및 목표 항목에서 음악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호주는 음악 교과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음악 지식 및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도 음악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정의적인 측면과 더불어 음악 교과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인지적 및 기능적인 내용을 강조한다면, 학생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음악교육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음악 교사들이 수업을 설계할 때 교육과정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예시를 제시한다. 호주의 경우 ‘내용 상세화’와 ‘주요 고려 사항’ 항목 등을 통해 음악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보며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 예시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교수·학습 방법’ 등의 항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보다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 수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 설계 시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교육과정 문서 안에서 음악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한다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활용도를 높이고 교사의 수업 설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과 호주의 교육과정을 각 분석 항목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이번 2022 음악과 교육과정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설계되었지만, 호주와의 교육과정 비교·분석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울러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CARA (2022a). *Music: About the subject*.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s/learning-areas#accordion-ee214a7dbe-item-0f8e9378e0>
- _____. (2022b).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About the general capability*.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s/general-capabilities#accordion-afa194f119-item-d6e6987a3d>
- _____. (2022c).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bout the general capability*.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s/general-capabilities#accordion-afa194f119-item-7e0ec1d9e0>
- _____. (2022d). *Music: Curriculum content F-6*.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

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s/learning-areas#accordion-ee214a7dbe-item-0f8e9378e0

_____ (2022e). *Music: Curriculum content 7-10*.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downloads/learning-areas#accordion-ee214a7dbe-item-0f8e9378e0>

_____ (2023a). *F-10 Curriculum overview*. Retrieved May 19,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f-10-curriculum-overview>

_____ (2023b). *Timeline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May 19, 2023, from <https://www.acara.edu.au/curriculum>

_____ (2023c). *General capabilities*. Retrieved May 19,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general-capabilities>

_____ (2023d). *Senior secondary curriculum*.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senior-secondary-curriculum>

_____ (2023e). *Implementation of the Australian curriculum*. Retrieved May 23,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f-10-curriculum-overview/implementation-of-the-australian-curriculum>

_____ (2023f). *National report on schooling in Australia 2021* (ISSN 1036-0972), 1-139.

_____ (2023g). *Cross-curriculum priorities*.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f-10-curriculum-overview/cross-curriculum-priorities>

_____ (2023h). *Learning areas*. Retrieved May 26, 2023, from <https://v9.australiancurriculum.edu.au/f-10-curriculum/f-10-curriculum-overview/learning-areas>

Jang, G. J., Park, Y. J., & Oh, S. K. (2023).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of the department of music applying the 2022 revised curriculum*. Gyeonggi-do: Uhga.

Lee, K. E. (2019).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mpetences in the music curriculum -With a focus on South Korea, France, Finland,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Min, K. H. (2019). Prospect and tasks of music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53-74.

Ministry of Education (2022a).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No. 2022-414. Sejong: Author.

_____ (2022b). *Music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2]. Sejong: Author.

_____ (2022c).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22-33. [Supplementary 1]. Sejong: Author.

- Oh, H. S. (2021). *The moment the music stops, the real music begins*. Gyeonggi-do: Book21.
- Park, J. H., & Kim, J. H. (2021a). Exploring the composition of new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direction(Draft) of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in 2022.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57-77.
- _____ (2021b). Comparative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USA,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Germany, France, and Finland.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71-92.
- So, K. H., Jang, J. K., & Lee, S. Y. (2011). Review on the Australian curriculum: Process of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1(2), 51-73.
- Song, J. H. (2014). A study o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design pla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n, M. J. (2018). An comparative and analytic study of music curriculum between Korea and Australia bas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perspectives.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3(1), 49-64.